



그룹 방탄소년단이 '멜론뮤직어워드(MMA) 2019 이매진 바이 기아'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베스트송' 등 대상 4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8관왕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MMA 8관왕... 2019년은 방탄소년단의 해

## 올해의 앨범·아티스트 등 4개 부문 대상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등불 되겠다" 소감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이 '멜론뮤직 어워드(MMA) 2019 이매진 바이 기아'에서 4개 부문 대상을 모두 휩쓸며 총 8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베스트송' 등 대상 4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앨범'에는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가, '올해의 베스트송'에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가 선정됐다. '올해의 레코드'는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음악적 성취를 이룬 아티스트와 그 제작자에게 수여되는 상이

다.

방탄소년단은 음원 성적과 멜론 회원 투표로 선정한 '톱 10'에도 이름을 올렸고, 그 외에 남자 댄스 상, 네티즌 인기상, 카카오톡스타상 등 총 8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아티스트로는 2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멜론뮤직어워드에서도 두 부문을 포함해 7관왕에 오른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2곳에서 수상하며 세계적 대세를 증명하는 데 이어 홍콩에서도 상을 휩쓸며 '방탄소년단의 해'였음을 입증했다.

리더 RM은 "사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되게 미약하다고 느낀다. 고작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음악 만들고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까만 바닥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전부인데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여러분이 저희의 길던 밤에 등불이 돼 주셨으니, 저희도 미약하게나마 저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국은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나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고 힘이 되는 좋은 곡들을 열심히 만들고 노래하겠다. 사랑한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슈가는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서 내년 계획에 대해 "저희의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베스트 송라이터' 상도 방탄소년단 음악을 만든 프로듀서 피독(본명 강효원)에게 돌아갔다.

'톱10'에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엑소, 마마무, 불빨간사춘기, 엠씨더맥스, 잔나비, 장범준, 정하, 태연, 헤이즈가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정하, 강다니엘, 잔나비, 마마무, ITZY,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플라잉, AB6IX, 헤이즈, 더보이즈 등의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방탄소년단은 '상남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소우주' 등에 이어 멤버별 퍼포먼스와 화려한 '디오 니소스' 무대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연합뉴스

## KBS광주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달성

### 9개 지역총국 중 최초

KBS광주방송총국이 KBS 지역총국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KBS광주방송총국은 총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BS광주'의 구독자가 지난달 15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BS의 9개 지역총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는 지역방송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KBS광주총국에 뉴미디어추진단을 출범해 유튜브 'KBS광주'와 '플레이버튼'을 운영해왔다. 지난달 28일 기준 'KBS광주'는 10만3,000명, '플레이버튼'은 2만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KBS광주'에서는 다양한 뉴스와 이슈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

츠로 취재·제작하는 '광개'와 KBS의 아카이브를 활용해 남녀노소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하는 '노래교실', 남도의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휴먼다큐 '남도지오그래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14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에 나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재가공한 영상은 조회 수 최고 600만 명을 넘는 등 조회 수 수백만 명의 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였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TV프로그램과 뉴스,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은 '5·18 아카이브', 전남의 다채로운 풍광을 담은 '전라뷰알라뷰' 코너 등을 통해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플레이버튼' 채널에서는 유튜브용 오리지널 콘텐츠 '플레이랭킹' '학교탐구생활' 등을 꾸준히 제작하며 1020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KBS광주방송총국 유튜브 채널 'KBS광주' 중 '광개' 코너 썸네일. 다양한 뉴스와 이슈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로 취재·제작한다. /KBS광주방송총국 제공

## 문화콘서트 난장, 전용 공연장서 새 출발

### 6일 첫 녹화... 치즈·신현희·안녕바다·엔플라잉 출연

광주MBC(사장 송일준)가 제작하는 라이브 음악프로그램 '문화콘서트 난장' (연출 김민호·이하 난장)이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한다.

오는 6일 오후 7시 첫 녹화를 하는 난장에는 MC로 발탁된 '신현희'의 스페셜 공연으로 시작한다. 신현희는 최근까지 듀오밴드 '신현희와김루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솔로로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난장의 6대 MC였던 '나무'가 보컬로 활동 중인 '안녕바다'가 특별 출연하고, 다양한 매력의 어반 팝 스타 일을 추구하는 싱어송라이터 치즈, 올 한 해 '옥탑방'으로 큰 인기를 끈 4인조 밴드 '엔플라잉'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나무는 "갈수록 발전하는 난장이 너무나 뿌듯하다"며 "이렇게 개관 특집공연에 안녕바다가 출연하게 돼 기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난장이 한국음악의 등불처럼 많은 라이브 뮤지션들을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지속됐으면 한다"고 애정 어린 소감을 전했다.

김민호 PD는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던 전용 공연장이 마련된 만큼 방송뿐만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이 전용 공연장인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가수 신현희가 MC로 발탁됐다. /광주MBC 제공

## CL, 솔로 아티스트 행보 시작

### 프로젝트 앨범 '사랑의 이름으로' 공개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 가수 씨엘(CL·본명 이재린·사진)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자 행보를 시작한다.

씨엘은 오는 4일부터 발매되는 프로젝트 앨범 '사랑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Love) 티저 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했다.

'사랑의 이름으로'는 씨엘이 이달 초 YG와 결별한 뒤 처음으로 내놓는 앨범이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홀로서기' 행보를 알리는 신호탄 격이다.

앨범은 총 6트랙으로 구성됐으며, 그룹 투에니원 (2NE1) 해체 당시부터 있었던 3년간 일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오는 4일부터 매주 2곡씩 3주에 걸쳐 공개된다.

씨엘은 티저 영상에 공개된 "여기까지가 내 한계/이렇게 이겨서 뭘해/처음으로 돌아가자" 등의 가사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비치기



도 했다.

씨엘 측은 앞으로 '사랑의 이름으로'라는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주 다른 버전의 앨범 아트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씨엘은 지난 2009년 그룹 투에니원 (2NE1)으로 데뷔해 리더이자 래퍼로 활동했다.

투에니원은 정형화한 여성 아이돌 콘셉트를 벗어난 이미지로 높은 인기를 끌며 '파이어' (Fire), '아이 돈트 케어' (I Don't Care) 등 히트곡을 냈다.

2016년 투에니원 공식 해체 후, 지난달 초 YG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씨엘은 특정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보다 독자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모모랜드 태하·연우 탈퇴 멤버 재개편

걸그룹 모모랜드가 태하·연우의 탈퇴 등으로 9인조에서 6인조로 재편된다.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팬카페에 글을 올려 6인조 재편 소식을 전하고 "태하와 연우 양은 금일부로 팀을 떠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태하 양은 심사숙고 끝에 본인의 의견을 우선 존중해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우에 대해서는 "모모랜드 활동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나, 배우 활동과 병행하는 것은 팀과 연우 양 모두에게 무리라 판단해 팀을 떠나 당사 소속 배우로서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지와 활동 문제를 상호 협의 중이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모모랜드는 앞으로 혜빈·제인·나윤·주이·아인·낸시 6인조로 활동할 전망이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동안 아티스트와 당사 간 많은 대화와 협의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될 모든 멤버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태하는 자신의 SNS에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새 출발 해서 더 예쁘고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2016년 데뷔한 모모랜드는 지난해 중독성 있는 가사의 '뽀뽀'이 히트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당초 7인조로 출발했으나 2017년 태하와 데이지의 합류로 9인조가 됐다. 태하는 팀에서 메인보컬을, 연우와 데이지는 래퍼를 맡아왔다. /연합뉴스

<p><b>子</b></p> <p>48년생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60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72년생 고민이 해소되고 희망이 썩는다. 84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형국이다.</p>	<p><b>丑</b></p> <p>49년생 구설수는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 61년생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73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날이다. 85년생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p>	<p><b>寅</b></p> <p>50년생 행복은 만족과 타협 속에 숨어 있다. 62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74년생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86년생 노력하면 이루어진다.</p>	<p><b>卯</b></p> <p>51년생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을 수 있다. 63년생 예상보다 더 큰 성과가 있겠다. 75년생 대의를 위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87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린다.</p>
<p><b>辰</b></p> <p>52년생 고비는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좋겠다. 64년생 꿈꾸는 자만이 희망을 품을 자격이 있다. 76년생 음주기무를 삼가라. 88년생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라.</p>	<p><b>巳</b></p> <p>41년생 행운이 따르고 앞길은 밝아온다. 53년생 크게 심신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 65년생 너무 진절할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77년생 긍정의 힘을 믿어보자.</p>	<p><b>午</b></p> <p>42년생 믿었던 자식이 속을 썩인다. 54년생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감투를 쓰겠다. 66년생 옆친 데 닳친 격이다. 78년생 고민이 해소되고 희망이 썩는다.</p>	<p><b>未</b></p> <p>43년생 몸이 좋은 약은 입에 쓴다. 55년생 몸은 아프고 금전지출도 생긴다. 67년생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값있다. 79년생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p>
<p><b>申</b></p> <p>44년생 제 눈에 안경이다. 56년생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68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80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이 이롭다.</p>	<p><b>酉</b></p> <p>45년생 신중하 연행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57년생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날이다. 69년생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다. 81년생 승승장구하는 좋은 날이다.</p>	<p><b>戌</b></p> <p>46년생 자기 자신을 낮추면 다툼 일이 없다. 58년생 실속 없이 공연히 바쁘다. 70년생 더 이상의 방향은 없어야 한다. 82년생 대결이 아닌 공존을 추구하라.</p>	<p><b>亥</b></p> <p>47년생 마음을 급게 쓰면 복을 받는다. 59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1년생 공돈이 생기는 운수 좋은 날이다. 83년생 근심이 해결되고 편안해진다.</p>